Jeep Story

2018 Vol. 03

ADVENTURE
IS CALLING

Jeep Story

2018 Vol. 03

Jeep Lineup

Contents

06 **The Real Adventure**
12 **Jeep Road** End of the Road, And of the Jeep
18 **My First Ride** 조선기
24 **All New Compass for Urban Adventurers**
32 **Urban Adventurers** 강소연, 강소진, 이동우
40 **My Jeep Story** 김현국 강석현
50 **New Classic, New Wrangler**
58 **Adventure in Music** Wrangler on the Storm
60 **Brand News**
62 **World Surf League** Flying above the Surf!
64 **Jeep Map** Service Center

모든 길에는 최초로 그 길을 걸었던 탐험가가 있다.
새로운 해로를 개발하기 위해 인류 최초의 지구일주 항해 선단을 이끌었던 마젤란이 그렇고,
비단과 향신료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 물품을 운반하며 실크로드를 만들어낸 상인들이 그렇다.
Jeep 또한 마찬가지다. 자연과 함께 교류하는 오프로딩 문화를 만들고,
SUV라는 기존에 없던 개념과 차량을 창조해냈으며,
더 나아가 SUV 풀 라인업을 갖춘 최초의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다.
Adventure에 이렇게 어울리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

THE REAL ADVENTURE

Adventure의 계절이 찾아왔다. 서핑보드를 싣고 바다로 떠나보자.

Rubicon은 카이사르가 주사위를 던졌던
루비콘강에서 유래한다. 그의 모험과도 같은
훌륭한 결단력처럼 Rubicon은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강과 계곡, 바위가 가득한 암석 지대 혹은
가파른 산 정상까지, Rubicon의 Adventure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Jeep의 본고장 미국에는 거친 모래사막이 즐비하다.
일반적인 자동차에게 모래사막은 위험 요소가
큰 두려움의 장소지만, Wrangler에겐 오프로딩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탐험의 장소에 불과하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을 질주하는
Wrangler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사막이 그보다
잘 어울리는 자동차는 아마 없을 것이다.

시대가 발달하며,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서쪽의 석모도가
그렇고 교동도가 그렇다. Jeep에게 모든 섬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다리가 놓이기 전부터,
Jeep는 섬의 끄트머리에서 다음의 모험을
생각했다. 한계라고 생각되는 길의 끝에서,
Jeep의 길은 새롭게 펼쳐진다.

END OF THE ROAD, AND OF THE JEEP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대개의 사람은 되돌아갈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Jeep는 길의 끝에서 새로운 모험을 꿈꾼다. 지금 이곳, 대한민국의 서쪽 끝에서
New Cherokee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Jeep가 달려온 길에는 지난 모험의 흔적이
담겨있다. 그 길은 현재에도 끝없이 이어진다.
잠시 쉬어가는 순간마저 Jeep는 또 다른 도전을
기약한다. 수많은 계절이 지나가고,
거센 바람이 불겠지만, Jeep가 남긴 모험의
발자취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Jeep의 4X4 System을 물려받은 New Cherokee는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하다.

길의 끝에서, Jeep는 섬 너머의 수평선을 상상한다.
든든하고 거침없는 New Cherokee의 불빛은
또 다른 모험을 예고한다.
누구도 예상해본 적 없던,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Jeep만의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된다.

MY *First* RIDE

Jeep와 함께하는 첫 번째 모험

느껴본 사람은 안다. 운전석에 앉아 Jeep의 핸들을 붙잡고 시동을 걸었을 때 드는 생각. 떠나야겠다.
모험을 꿈꾸게 만드는 Jeep의 마력. 이번 호에는 카누를 타고 소양강을 누비는 춘천 유목민,
조선기 대표의 Adventure Story를 담아본다.

느림의 미학이 있다. 자동차를 탄 사람은 자전거를 탄 사람이 느끼는 갈대밭의 파도를 알 수 없고, 자전거를 탄 사람은 걷는 사람의 눈에 비친 길가의 들꽃을 알 수 없다. 여유를 갖고 바라볼수록 세상의 아름다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카누도 마찬가지다. 카누는 모터보트보다 느리다. 그렇기에 느낄 수 있는 카누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월요일 아침, 강원도 춘천에 있는 조선기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 그는 '노아'라는 이름의 골든리트리버와 함께 묵묵히 카누를 만들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카누를 다듬는 그의 손길은 고요한 강을 저어가는 카누의 노와 닮아있었다. 그가 카누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군대 전역 후, 해외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카누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 북미 지역의 카누를 벤치마킹했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는 카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과 국외 서적을 번역해가며 독학으로 카누 관련 사업을 준비했죠. 고등학교 때 이모부의 목공소에서 작업을 도와드렸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New Cherokee를 타고 춘천의 오프로드를 주행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마침 찾아온 비 소식에 산길이 조금 거칠어졌지만. Jeep가 있었기에 오히려 즐거운 여정이었다.

CHEROKEE
조선기 —— 작가

강원도 춘천에서 카누 제작 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이 카누를 즐길 수 있도록 카누 캠핑을 운영하는
조선기 대표. 그와 함께 New Cherokee 오너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카누 라이딩을 즐겨보았다.

노와 각종 캠핑 장비 및 카누를 싣기 위해서는 Jeep만큼 든든한 차도 없다.

"사실 Jeep와 카누는 꽤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캠핑을 떠날 때 Jeep에 카누를 싣고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육지에서는 누구보다 듬직한 Jeep로 오프로드를 즐기고, 강이나 계곡에서는 여유롭게 카누를 즐길 수 있겠죠. 수륙 모두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캠핑이 되지 않을까요."

New Cherokee를 처음 시승해본 조선기 대표는 오프로드 코스에서 다양한 사륜 구동 시스템을 몸으로 직접 확인하고, 온로드에서는 안전 및 주행 편의 시스템 등을 체험해 보았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자동 주행이라고 여길 정도로 제가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초보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연구 개발 중인 카누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누에 GPS 시스템을 장착하여 혹시나 배가 전복됐을 때, 위치 정보를 인근 경찰서 혹은 소방서에 즉각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드라이빙이든 카누 라이딩이든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니까요."

그는 주로 카누 라이딩을 즐기는 곳으로 소양호, 파로호, 춘천호, 소양강 상고대를 말했다. 그중에서 상고대를 적극 추천했다.

"카누의 매력은 자연 속에 동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New Cherokee는 주로 도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카누는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서울의 한강, 춘천의 소양강 혹은 북한강에서 얼마든지 카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양강 상고대는 카누 라이딩의 매력을 절정으로 맛볼 수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카누 라이딩을 배운 뒤, 소양강의 한가운데로 나가보았다. 카누는 한 방향으로 노를 저으며 나아간다. 처음 노를 저어가는 모습을 보면 배의 진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노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힘껏 저은 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 몇 초 동안 노를 수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 방향으로 물살을 밀어내던 노가 별안간 물살을 막는 형국이 되죠. 배로 치자면 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평과 수직의 반복 구조를 몸으로 익히다 보면 양쪽으로 번갈아 젓지 않아도 원하는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Jeep와 카누는 꽤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다.
Jeep에 카누를 싣고 떠나보자. 오프로드에서든,
계곡에서든 Adventure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카누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 그가 자신의 카누를 바라보며 꺼낸 말이다. 카누 제작은 처음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구상을 시작으로 재료를 고르고, 안전과 균형감 등을 고려하는 치밀한 수작업 과정을 거친 뒤, 마감 처리로 진행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약 3주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비로소 카누 한 대가 완성된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꿈을 키워 성인이 되어 꿈을 실현시켜나가고, 노년에 이르러 지나온 꿈을 추억하며 하나의 삶을 완성하듯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기 대표에게 카누는 자식이자, 새로운 도전이며, 인생 그 자체이다.

01 조선기 대표가 만드는 우든 카누는 올림픽 카누나 레저용 카누에서 느끼기 힘든 친숙하고 따뜻한 자연 친화적인 맛이 있다.
02 조선기 대표의 공방은 노력과 시간, 세월이 담긴 도구로 가득하다.

ALL NEW COMPASS
FOR URBAN ADVENTURERS

All New Compass

도시의 네온사인을 벗어나, 자신만의 모험을 떠나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새로운 열정이 솟아오른다. 변화의 시작, All New Compass.

일상을 가득 채운 모험을 향한 충동이 우리를 깨운다.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존재, All New Compass.

새로운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돌아온
All New Compass. 혁신과 도전이 만든
또 하나의 Legend.

Revolution of Compact SUV

새로우면서도 Originality를 잃지 않는 것, All New Compass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모두 각자의 공간 속에서 모험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듯, All New Compass의 디자인에는
우리가 간직한 모험과 Jeep만의 고유한 Originality가 있다.

All New Compass는 공격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완성하며, Compact SUV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30대로 구성된 디자이너 팀은 All New Compass에 젊음과 모험을 담았다고 전했다. 그들은 저마다의 모험심을 감추고 있는 Urban Adventurers들을 위한 새로운 Compact SUV를 탄생시키고자 했다.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세이디 엘리아스는 말했다.
"우리는 즐거움과 활동, 트렌드와 고급스러움의 경계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움을 더하는 일도 필수였죠. 소비자들이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 일은 실패한 거죠."
All New Compass를 처음 접할 때, 공격적이고 피지컬한 외관을 느낄 수 있다. 루프에서 백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라인은 All New Compass의 새로운 디테일 중 하나다. 또한 진보적인 블랙 루프라인도 빼놓을 수 없다. 클리프 윌킨스는 운전석에 대한 오너의 첫인상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리에겐 당신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Jeep만의 인상을 받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센터 데크를 고정시키는 사다리꼴 디테일과 터치 스크린은 우리가 열광하는 Jeep 인테리어의 큰 특징이죠. Jeep는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고, 실루엣만 봐도 즉시 Jeep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All New Compass는 빛에 대한 고민도 아끼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LED 엠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에게 최고의 주행 무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공격적인 외관과 디테일한 실내 인테리어까지, Jeep 고유의 아이덴티티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All New Compass는 누구도 닮지 않은 독보적인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왔다.

Everywhere Perfect, Compact SUV

Compass가 진화했다. 도시와 오프로드 어디서든 컴팩트한 매력을 발산하는 All New Compass는 일상에 신선한 액센트를 부여하고, 당신의 일탈에 세련됨을 더해줄 것이다.
디자인부터 성능, 편의 기능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당신의 드라이브에 영감을 더해 줄 All New Compass의 디테일을 소개한다.

Safety and Security

안전과 보안은 All New Compass가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이다. 운전자와 승객은 70가지가 넘는 안전 및 보안 기능으로 보호 받게 된다. 6개의 기본 에어백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 및 보안 기능이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비상 상황에 직면할 때 도움을 준다. 견고한 프레임 구조는 강철과 첨단 소재의 혼합으로 운전자와 탑승객을 안전하게 감싸준다. Uconnect® Voice Command 시스템을 사용하면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전화에 응답하고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 제어도 가능하다. 언덕 밀림 방지 기능과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등이 포함된 차세대 ABS 기술은 최적의 주행과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 해준다. 주행 시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후방 교행시스템이(LIMITED 모델 적용) 안전한 주행을 돕고, 주차 시 후방 장애물과의 거리를 표시해주는 센서와 카메라는 어느 각도도 놓치지 않고 운전자와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Screen, Display & Sound System

All New Compass에는 블루투스가 장착된 7인치(Longitude)/8.5인치(Limited) 터치 스크린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Uconnect® 시스템의 터치스크린 기능은 더욱 빠르고 간결해졌다. 두 손가락을 이용한 줌-인, 줌-아웃기능과 스와이프 모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같은 편안한 사용감을 전달한다. Apple Car Play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Uconnect® 터치스크린 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터치스크린으로 실내 온도와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을 작동하는 등 많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핸즈프리 통화를 하거나 목소리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라디오 채널을 선택하고, 전화 통화 및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까지 모두 음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USB 포트, 오디오 잭, 블루투스 스트리밍 오디오 등 기호에 따라 다양한 사운드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다.

Powerful Performance

All New Compasss의 심장은 효율성과 반응력이 조화로운 2.4L TigerShark®이다. 흡기 실린더의 압력과 효율을 극대화해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4x4 최강 연비를 동시에 능하게 만든 주인공이다. All New Compass는 연료 효율성이 향상되고 배출가스가 줄며 조용하고 단단한 All New Compass만의 퍼포먼스를 완성했다. 트랜스미션도 이전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한결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다.
9단 오토매틱 기어와 4개의 오버드라이브 기어비는 전체적인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연료 절약형 Stop/Start 기술이 기본사양으로 포함되어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을 중단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즉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기능을 탑재했다.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도 기본사양이다. 운전자는 온-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지면 상황에 맞게 주행이 가능하다. Jeep® 액티브 드라이브 4x4 시스템에는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2륜구동과 4륜구동으로 원활하게 전환되는 기능이 있으며 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은 'Auto', 'Snow', 'Sand', 'Mud' 등 도로 컨디션에 따른 4가지 모드의 전천후 기능을 제공한다. All New Compasss는 기존의 Compact SUV와는 다르게 최강 SUV Jeep만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한 혁명적인 4x4 성능을 갖췄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자신만의 모험심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All New Compass와 함께 도시를 벗어나보자. 숨겨져 있던 모험심 가득한 열정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안전성을 높이는 견고한
프레임 구조의 에어백.

Apple Car play 적용.

Lifestyle Compass for Urban Adventurers

복잡한 도심에서 자신만의 길을 밝히고, 모험을 즐기며,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가치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Urban Adventurers라고 부른다. All New Compass와 함께 모험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Born to Urban Adventurers

강소연
강소진 —— 히트핏 복싱짐 대표

복싱 협회 이사로 활동 중인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강소연, 강소진 자매.
일명 복싱 가족으로 유명한 이들의 1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며, 복싱의 진정한 매력에 대해 경험해보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싱은 얼마나 때리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주먹을 버텨내느냐'이다. 인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압도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삶은 버텨야 할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복싱을 하며 또 하나의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강소진은 전국여자신인복싱선수권 대회 은메달,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 금메달 등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히트핏(Hit Fit) 복싱짐의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눈앞에서 그녀의 섀도복싱과 샌드백 트레이닝을 관람했을 때는 현역 선수로 느껴질 정도의 역량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췄을 것 같은 강소진 관장.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경기의 한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핸드랩은 손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고, 손목을 단단히 고정시켜 준다.
단순한 멋으로 착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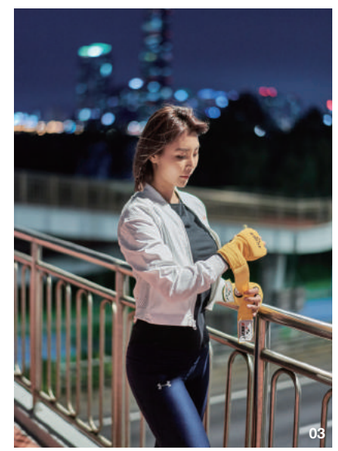
01

All New Compass만 있다면,
도시에서도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Jeep 고유의 강렬한 DNA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복싱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창 선수로 활동할 때만 해도 나름 운동신경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미친 듯이 노력하는 시기는 아니었죠. 그런데도 경기 결과가 잘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시합에 나가서 첫 대진에 세계 은메달리스트와 스파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실력과 노력의 차이를 실감했죠. 찰나의 순간 대여섯 번 정도의 펀치를 맞았던 것 같아요. 순간 정신을 잃었죠. 그때부터 복싱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는 저녁 6시 무렵, 히트핏 복싱짐은 회사원에서 복서로 탈바꿈한 관원들의 땀과 열기로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강소진 관장은 인터뷰 도중의 짧은 휴식을 이용해 관원들 개개인을 위한 세밀한 설명과 트레이닝을 도왔다. 조금 전까지 섀도복싱과 줄넘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사람의 체력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았다.
"복싱을 할 때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도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와 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극한의 순간에 오히려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주먹 한 번을 더 내지를 수 있고, 발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02

오후 내내 강소진 관장과 복싱짐에서 트레이닝을 즐긴 후, 이번에는 Compass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올림픽대로를 달렸다. 강소연 대표와 함께 저녁 로드워크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을 셈이었다.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복싱 외에도 농구, 골프, 서핑을 즐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Compass는 너무 매력적인 차 같아요. 골프나 서핑은 장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넓은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너무 큰 차량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어요. Compact SUV에 너무 잘 어울리는 차라고 할까나."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스포테이너(Sportainer)' 활동 중인 강소연은 복싱 심판인 동생 강소진과 함께 작년 10월경, 히트핏(Hit Fit) 복싱짐을 오픈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복싱과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싱'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완성했다. 복싱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직접 증명해낸 것이다.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체육관도 운영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모델 촬영도 자주 진행하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렇게 동생이랑 한강으로 드라이빙을 떠나오니 너무 즐거워요. 오래간만에 어릴 때처럼, 둘만의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준 Compass에게 고마워해야겠어요. 도심의 모험가들을 위한 차라고 하셨죠? 딱, 우리 자매를 위한 차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를 모험하듯 살아요. 평일에는 체육관에서 활동하고, 주말에는 짬짬이 틈을 내어 서핑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거든요. 요즘은 도로가 잘 뚫려 있잖아요. 도시에 살면서도 충분히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 또 새로운 모험을 떠나고 싶어지네요. (웃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커다란 펀치를 맞기 마련이다. 복싱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를 키워준다. 단순히 상대를 가격하고 쓰러뜨리는 운동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험난한 도심을 살아가는 모험가들에게 복싱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다.
All New Compass처럼 말이다.



03

04

05

01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다. 몸을 충분히 풀어준다.
02 사각링 안에서 복서들은 꿈을 꾼다. **03** 한강공원에서 섀도복싱과 로드워크를 반복하는 강소연 대표.
04 미트 트레이닝은 타격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05** 도심의 밤을 비추는 All New Compass.

히트핏에서 알려주는 1일 트레이닝 로드맵

스트레칭
발목 ▸ 무릎 ▸ 허리 ▸ 어깨 ▸ 손목 ▸ 목 ▸ P·T 체조 20회

복싱 워밍업 반복 50회
1 허리 회전을 통한 주먹 뻗기(좌 · 우)
2 아래로 원투원투 펀치
3 칙칙폭폭(전방을 향한 연속 원투 펀치)

스텝 워밍업 50회
1 좌 · 우 스텝 점프 **2** 앞 · 뒤 스텝 점프
3 크로스 스텝 **4** 버피테스트 10회 X 2세트
5 점핑스쿼트 10회 X 2세트

줄넘기 3R

섀도 5R

샌드백 3R

Flying over the city

이동우 —— 스카이어드벤처 대표

군 복무 시절, 특전사로 활동하며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동우 대표. 그와 함께 하남에 있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상공을 날며 도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어드벤처를 즐겨보았다.

01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은, 조금은 특별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할 때에도 특수 부대에 지원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말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카이다이빙팀이었죠. 그 팀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사리에 위치한 자택에서 처음 마주한 이동우 대표는 밝은 미소와 건장한 체구를 가진 모험심 가득한 소년과 같은 사람이었다. 스카이다이빙은 의외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 어드벤처'는 하남시에 있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자주 놀라더라고요. 도심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서울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면 체험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적이 드문 교외가 아닌 도심 근처에서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도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스카이다이빙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동우 대표는 그것을 '완벽한 자유'라 말했다.

02

03

01 이동우 대표에게 스카이다이빙은 삶 그 자체이다.
02 가로수 사이를 누비는 도심 주행에서도 Compass의 존재감은 돋보인다.
03 여름에는 선루프를 열고 달려야 제 맛이다.

**현실은 도심을 달리고 있지만
마음은 빌딩 숲의 아마존을 모험하는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유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자유가 아닌, 복잡한 도심과 바쁜 일상을 모두 잊게 해주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숨 막히게 바쁜 도시인들에게 완벽한 자유만큼 훌륭한 선물이 있을까요. 낙하산을 펴지 않은 채로 시속 200km로 도심의 상공을 하강해보면 그렇게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을 까맣게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펼치는 거죠. 하늘이라는 공간에 유유히 머문다는 것. 그만큼 완벽하고도 짜릿한 자유의 맛은 찾기 힘들겁니다. 도심 혹은 수도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수직으로 솟구친 빌딩 숲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서울의 새로운 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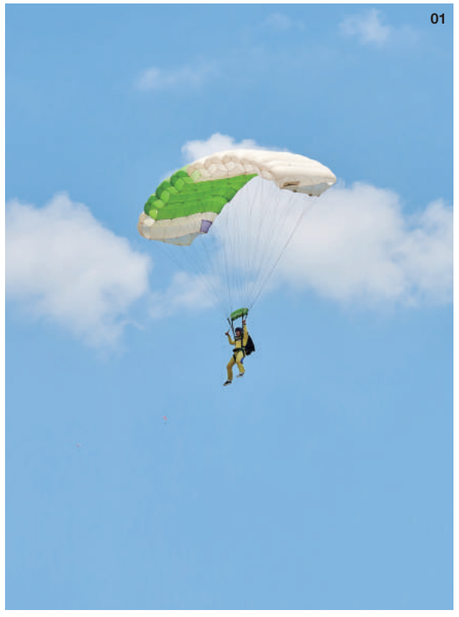
그와 함께 스카이다이빙 체험장으로 이동하며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Jeep는 좋아하지만, 주행해보는 것은 처음이라는 이동우 대표. 그에게 Compass에 대한 시승 소감도 들어보았다.

"Compass는 도심에서 활동하는 모험가들을 위해 젊은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를 위해 만든 차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웃음). 2016년도에 김병만 씨가 출연하는 〈정글의 법칙〉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죠. 호주에서 동쪽으로 1,500km,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1,700km 정도에 위치한 섬입니다. 흔히들 천국과 가장 가까운 섬으로 부르는 곳이죠.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섬은 어떤 비유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낙하산을 펼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넋을 잃고 바라봤었죠. 그 외에도 해외의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이빙을 즐긴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오프로드로 이동해야 하는 구간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게 Jeep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Compass를 운전하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현실은 도심을 달리고 있지만, 마음은 빌딩 숲의 아마존을 모험하는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온로드, 오프로드 구분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리는 맹수 같은 매력을 지닌 차라고 생각합니다."

01 하늘에서 낙하하며 내려다 본 한강의 풍경.
02 낙하 장비는 항상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당히'는 있을 수 없다.
03 가장 떨리는 순간은 헬리콥터에 탑승하기 직전이 아닐까.

자유와 모험을 일상처럼 즐기는 이동우 대표, 그처럼 스카이다이빙 전문 다이버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문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안전이죠. 다이빙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과 착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읽을 줄 아는 기술도 필요하죠. 스카이다이빙은 착지할 때 역풍을 받으며 내려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착지하면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부상당할 확률이 높죠. 그렇게 안전에 대한 철저한 연습을 마치면, 다른 다이버들과 함께 다양한 스카이 다이빙 액션을 준비하거나 솔로 액션 등을 연습해봅니다. 아마 많은 다이버들이 가장 즐겁게 임하는 연습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대략 20~25번의 강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테스트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죠."

평소에는 서울과 하남을 오가며 도심의 빌딩 숲을 거닐지만, 주말에는 3,000m 상공 위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이동우 대표. 그에게 스카이다이빙은 치열한 도심 속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세상 단 하나뿐인 Real Urban Adventure다.



01 낙하산에서 바라본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02 하늘을 대표하는 헬리콥터와 오프로드를 대표하는 Jeep가 만났다.

MY JEEP *Story*

나만의 Adventure, 나만의 Jeep Story

모험은 언제나 즐겁다. Jeep 오너에게 모험은 순간이 아닌 일상이다.
산이나 계곡으로 떠나지 않아도 우리는 모험을 즐길 수 있다.
한강에서 나만의 피크닉을 즐기거나, 문 닫은 놀이공원에 잠들어있는 회전목마를 만나는 일도
Jeep 오너들에겐 단순한 일상이 아닌 모험의 연속이다.

RENEGADE
김현국 —— 사진 작가

어린 시절, 사진을 찍어 주시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포토그래퍼 일을 시작했다는 김현국 대표.
역사가 담긴 공간을 좋아한다는 그와 함께 Renegade를 타고
'시간이 멈춘 서울'로 출사를 떠났다.

"사진은 존재의 흔적입니다. 과거의 찰나를 담아내어 영원한 시간 동안 향유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죠." 담담한 어투로 사진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김현국 대표. 그와의 첫 미팅부터 사진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다운 깊이 있는 무게가 느껴졌다.
사진 책방을 열게 된 계기로 그는 학창 시절을 이야기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갤러리를 다니거나 아트&디자인 관련 서적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작가의 세계관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술관을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죠. 그렇게 세월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집을 컬렉팅하게 되었고, 결국 '이라선' 책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라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한글 줄임말 혹은 순수 우리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라선은 'Easy like Sunday'의 줄임말입니다. 책방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공간이 일요일과 같은 편안한 공간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촌 한복판에서 무슨 영어 이름이냐는 지인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래서 떠날 리(離), 아름다울 라(娜), 배 선(船)을 합쳐서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배'라는 이름도 함께 짓게 됐습니다."

01

02

01 김현국 대표의 소울메이트, 필름카메라와 Jeep.
02 그의 사진은 대상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된다.

Jeep가 새로운 곳,
가보지 않은 모험의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듯,
포토그래퍼 김현국도 숨겨진 2%의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01 두무개길을 달리는 Renegade.
02 버닝 기법을 활용하여 그가 촬영한 회전목마.

그는 역사가 담긴 것을 좋아했다.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에서 라이카와 같은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Jeep를 좋아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Jeep는 초기 Willys 모델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현재까지 계승되어온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새로움도 좋지만, 과거의 유산을 나날이 발전시키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Renegade는 Willys DNA를 현대의 시각에 맞게 재해석한 훌륭한 모델이죠."
좁은 골목이든 험난한 오프로드든 촬영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데려다 주는 그의 단짝 Renegade. 그의 친구와 함께 우리는 시간이 멈춘 서울, 용마랜드로 떠났다.
용마랜드는 2011년에 폐장된 놀이공원이다. 1983년 개장하고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 곳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아이들을 태우고 푸른 초원을 달리는 회전목마가 잠들어있고, 보물섬을 찾기 위해 푸른 바다로 노를 젓는 해적선이 있다. 김현국 대표는 아이들의 꿈이 잠들어 있는 이곳을 필름카메라에 담았다.
"필름 카메라에는 버닝(Burning)이라는 촬영 기법이 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 의도적으로 필름을 햇빛에 노출시켜서 태워버리는 방식의 촬영이죠.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면 인화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태워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에 기반한 독특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버닝은 눈을 감고 햇살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몽상' 또는 '한낮의 꿈'으로 불리기도 하죠.
처음 용마랜드를 생각했을 때 과거 아이들의 꿈을 안고 초원을 달리고 바다를 누볐던 놀이기구를 버닝 기법으로 담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용마랜드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이라선 책방으로 돌아왔다. 저물어가는 일몰 속에서 그는 사진집 한 권을 추천했다.
"저는 알렉소스의 〈슬리핑 바이 더 미시시피(Sleeping by the Mississippi)〉라는 사진집을 좋아합니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알렉소스가 미시시피강을 여행하면서 담은 사진집인데,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요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움에 관한 분위기를 일관적으로 끌어내면서 좌절된 꿈, 죽음, 정치 등의 내용을 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미시시피라는 공간을 방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담겨 있어요." 그는 그중에서도 2장의 사진을 추천했다.
"첫 번째 사진은 2004년 휘트니 비엔날레 포스터를 장식한 사진이자 알렉소스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시카고 미네소타의 한겨울, 찰스는 양손에 모형 비행기를 들고 몽상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퇴색한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보편적 연민이 담겨 있죠. 강요되는 연민이 아닌 꿈을 찾아 헤매는 듯한 몽상가의 연민. 이렇게 절제된 시각 언어가 알렉소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발라드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 테리, 키스, 윌리암, 랜디라는 이름을 가졌죠.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강이 합류한 지점에서 수감 중인 그들은 비록 갇혀 있지만 저마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중 키스의 꿈은 언젠가 비행기 조종사 학교를 여는 것이죠."
사진은 98%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포토그래퍼의 역할은 그 안에 숨겨진 2%의 메시지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김현국 대표가 생각하는 사진작가의 역할이다. Jeep가 새로운 곳, 가보지 않은 모험의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면 포토그래퍼 김현국 대표는 숨겨진 2%의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다.

Sleeping by the Mississippi

03 Charles, Vasa, Minnesota.
04 Fort Jefferson Memorial Cross, Wickliffe, Kentucky.

WRANGLER

강석현 —— 셰프

평소 캠핑을 즐긴다는 압구정 '아우어다이닝'의 강석현 셰프. 최근 바쁜 일정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했다는 그를 위해 가까운 한강 공원을 찾아 보았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1인 피크닉. '혼크닉'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다.

몇 년 전부터 다양한 혼자 문화 만들어지고 있다. 혼밥, 혼술,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이 그렇다. 생각해야 할 것이 넘쳐나고, 고민과 걱정이 늘어나는 시대에 살다보면 자연스러운 문화가 아닐까. 강석현 셰프와 함께 1인 피크닉, '혼크닉'을 떠난 이유도 그와 비슷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 되면 캠핑을 떠나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챙겨서 인적 드문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곤 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고 오면 정말 큰 활력이 됐어요. Wrangler를 구입했던 이유에 캠핑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요즘은 떠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렇게나마 한강으로 피크닉을 떠나온 것도 제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항상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정신은 Wrangler와 너무나도 어울렸다.

01 02 친근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강석현 셰프지만, 요리를 대할 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하다.
03 Jeep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훌륭한 Picnic 장소로 만들 수 있다.

강석현 셰프와 요리의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장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해오던 요리가 어느 순간 자신의 꿈이 되었고, 학업을 포기한 채 그를 서울로 상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음식점과 중식당을 거쳐 경리단길의 장진우 식당에 터를 잡은 그는 그때부터 이탈리안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요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강석현 셰프. 현재는 가장 핫한 Food 스타트업인 'CNP 푸드'의 R&D 총괄이 되었으며, 압구정을 대표하는 레스토랑, '아우어다이닝'의 헤드 셰프가 됐다. 하지만 강석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우어다이닝' 인근에 '도산분식'이라는 프리미엄 분식 전문 레스토랑을 추가로 오픈했고, 더 나아가 이태원의 '썬댄스 플레이스'라는 곳도 함께 운영하게 됐다. 심지어 요리하며 쌓인 조리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키친 웨어 브랜드인 '공에이프런'까지 론칭했다. 바쁘다는 말이 괜한 소리는 아닌 것이다. 멈추지 않고 항상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정신은 모험과 도전, 오프로드를 대표하는 Wrangler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 잘 이뤄지고 있어서 가끔은 괜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요즘의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본업이 되면 그 일이 싫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게 현재의 제 모습입니다. 그래도 정말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혼밥, 혼술 등을 즐기는 분들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1인 피크닉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Jeep에 감사드립니다."

04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강석현 셰프가 그렇다.

강석현 셰프가 Wrangler를 구입하게 된 이유에는 앞서 이야기한 캠핑이 큰 작용을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담겨 있었다.

"일단 Jeep라는 브랜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변하지 않는 아이덴티티는 물론, 모험심을 자극하는 알 수 없는 매력이 담겨 있거든요. 그 외에도 기능 혹은 편의성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요리도 만들다 보니, 차량에 무언가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Wrangler는 만족스러운 적재 공간을 제공하죠. 그 외에도 눈길이나 빗길을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걱정하게 만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듬직하죠. Jeep니까요. 그중에서도 Wrangler니까요."

현재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강석현 셰프. 일과 행복 앞에서 고뇌에 빠지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강석현 셰프는 일과 행복 모두를 쟁취하며 자신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저는 '아우어다이닝'을 10~20년 동안 꾸준히 운영하고 싶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의 트렌드처럼 뜨고 지는 매장을 자주 봐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우어다이닝'이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별똥별이 아닌,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밝게 빛나는 행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아우어다이닝'스러운, '아우어다이닝'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요리를 만들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미래이자 목표입니다."

77년 동안 변하지 않는 헤리티지로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해온 Jeep의 정신처럼, 강석현 셰프의 요리에 대한 마음은 10~20년을 넘어, 평생 동안 변치 않을 굳건하고 단단한 반석처럼 느껴졌다.

강석현 셰프가 추천하는 Summer Picnic Recipe

볼로네제 파스타

올여름도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무더운 날, 바다 또는 계곡 떠나기는 너무 귀찮고, 피서의 느낌은 내고 싶은 당신을 위해 가까운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1인 피크닉 레시피를 소개한다. 공원까지 나가기도 귀찮다면 거실 발코니에서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즐겨도 되겠다.

How to

1 간 소고기를 양파, 마늘, 당근, 샐러리와 함께 태우듯 장시간 볶는다.
2 내용물의 표면이 갈색으로 볶아질 때쯤 레드 와인을 넣어 카라멜라이징한다.
3 치킨스탁과 토마토 홀을 넣어 1시간 정도 푹 끓여준다
4 파스타면과 볶아낸 뒤, 치즈와 버터를 넣어 풍미를 더해준다.

New Classic, New Wrangler

오프로드에 살아있는 전설 Wrangler, 그 위대한 유전자는 모험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물길을 헤치고, 진흙 길을 누볐던 막강 전천후 DNA가 All New Wrangler에 스며있다.
하반기 국내 출시되는 All New Wrangler, 그 웅장하고 거침없는 카리스마를 미리 느껴보자.

Taking It To New Heights

All New Wrangler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Jeep 브랜드 전통을 대표한다.
전설적인 4x4 기능과 Off-Road 퍼포먼스는 누가 봐도 최강자임을 입증한다.
지금부터 All New Wrangler가 가진 독보적인 오프로딩 팩트를 살펴보자.

Improved Legendary 4x4

Command-TRAC® 4x4 System

오프로드 기능을 위한 파트타임 방식의 '시프트 온더 플라이 시스템'으로 터프한 구동능력을 위해 전방 및 후방 차축 사이의 토크를 50/50으로 나눴다. NV241 GII 트랜스퍼 케이스는 최대 72km/h의 속도에서 2WD-4WD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한다. 심각한 비탈길에서도 2.72:1의 낮은 기어비 덕에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Sport, Sahara모델 적용)

Rock-TRAC® 4x4 System

오프로드에서 가장 견고하고 유능한 루비콘의 경우, 더욱 정교해진 사륜구동 시스템인 '커맨드 트랙'과 '락 트랙'을 장착했다. Rock-Trac® 4x4 SYSTEM의 4:1이라는 낮은 기어비는 험난한 바위를 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매우 느린 속도의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언덕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장애물을 넘을 때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낮은 기어비에 더해 84.1:1의 크롤비(crawl ratio)를 갖추고 있어 뛰어난 험로 주파 성능을 자랑한다. (Rubicon 모델 적용)

All New Wrangler는 최고의 크롤비를 자랑하던 73:1의 크롤비를 77:1까지 올리면서 어떤 험난한 길도 주파할 수 있는 차 본연의 힘을 강화시켰다. 또한 오프로드 성능을 좌우하는 진입각을 넓히고 이탈각, 램프각을 더욱 좁히며 험난한 장애물도 가볍게 넘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는 접지력이 탁월하여 더욱 자신감 있는 주행을 돕는다.

Stay true to the heritage

Willys MB와 CJ의 미학적 유산을 계승한 전통적인 Jeep 디자인과 현대적 미학이 만나 All New Wrangler로 탄생했다. 랭글러의 상징인 둥근 헤드라이트와 7-슬롯 그릴(the seven slot grille) 그리고 사다리꼴 휠 하우스(wheel arches) 등 전통적 Jeep의 디자인 요소는 70여 년 전, Willys MB와 CJ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 특히 7-슬롯 그릴의 양쪽 수직 라인을 헤드라이트와 교차시킨 디테일에서 Jeep가 가진 CJ 모델에 대한 오마주를 읽어낼 수 있다.

All New Wrangler는 클래식 Jeep를 그대로 옮겨 놓은 대담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이며, SUV 본능에 충실한 자유와 야생의 Real Adventure를 담아냈다. 특히 거침없는 주행을 위해 뒤쪽으로 살짝 꺾인 7-슬롯 그릴과 커진 창문, 넓어진 전폭(stance), 낮아진 벨트라인(belt line)은 주행 중 공기역학의 방해를 줄이고 오프로드에서의 보다 넓은 시야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올드 스쿨' Jeep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 헤리티지의 느낌을 살린 계기판을 비롯해 블랙 가죽에 수 놓인 탄탄한 박음질은 차내 곳곳에서 클래식 Jeep의 아우라를 느끼게 한다.

이 밖에도 엑슬락 버튼이나 스웨이바 버튼 등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All New Wrangler의 새로운 디자인 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탈착식 풀-프레임 도어, 그리고 하드 탑과 소프트 탑 모두 장착 가능한 오픈-에어(the open-air) 루프는 오프로드를 누비는 당신에게 더욱 자유로운 모험을 선사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Jeep Heritage의 첫발을 내디딘 Willys MB. All New Wrangler의 위풍당당한 프론트 헤드라이트와 일곱개의 수직 그릴이 Willys MB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가능성의 상징인 랭글러가 더욱 새로워졌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차,
All New Wrangler가 당신의 모험담에 차원이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New levels of fit and finish

All New Wrangler의 내부는 고품질 자재와 마감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모듈 형 Freedom Top® 하드탑 구조는 사용하기 쉬운 세 파트의 구조가 특징이며 더 가벼운 Freedom 패널과 향상된 래치(latches)를 도입, 하드 톱을 더 빨리 제거하고 설치할 수 있다. 외관 또한 대담한 변화를 시도했다. All New Wrangler의 독특한 외장은 전용 가죽으로 싸인 내부와 LED 조명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연비와 환경문제도 개선하였다. 공기저항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량화와 엔진 등 구동계에서 해답을 찾았다. 보디 온 프레임은 경량화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므로 뼈대 이 외의 부분(도어와 도어 힌지, 보닛, 펜더 등)을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뒤쪽 스윙 게이트는 마그네슘을 사용했다. 그 밖의 다양한 부분에서 소재와 설계를 손봐 무게를 덜며 연비와 성능을 높였다. 섬세한 디자인부터 지프 브랜드의 주행성능까지 갖춘 사하라 모델은 울트라-프리미엄 레더 트림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개성 넘치는 스티칭과 자수로 내부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차내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뒷좌석 사용자들이 직접 온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뒷좌석에도 따로 조절버튼을 만들었다. 내부 공간 또한 2열 탑승자들을 위해 훨씬 넓어진 공간을 확보하며 오프로더들의 안목있고 까다로운 욕구를 만족시켰다.

적당한 무게감에 당기는 맛을 더했다.
게다가 부드럽고 빠른 효율성까지.
더욱 향상된 변속기의 성능이 Wrangler의
경쾌한 주행감을 높인다.

Advanced Powert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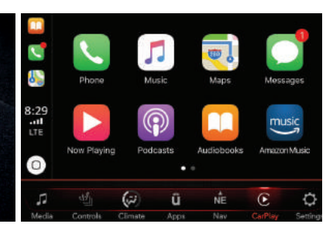
All New Wrangler는 새로운 엔진 '2.0L TURBO I-4 ENGINE'을 탑재하며 기존 엔진 대비 26%의 연비를 향상시켰다. 2.0L자동 정지 시동, 전력 보조, 확장 연료 차단, 변속기 전환 관리, 지능형 배터리 충전 및 회생 제동을 포함한 연료 절약과 에너지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직접 분사 기능은 배기 가스를 줄이면서 동력을 높이고, ESS 기술은 연비를 향상시킨다. ESS 기능은 정지신호나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정차하는 동안 엔진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작동한다. 이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다시 자동으로 작동한다. 최적의 동력 전달 효율을 위해 개별 주행 스타일에 따라 변속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다.

Entertainment and Display

Uconnect® 시스템을 통해 음성 명령을 통해 노래를 선택하고,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스피커 또한 최고 사양을 탑재했다. 저음을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우퍼 스피커로 풍부한 음질을 느낄 수 있으며, Over-Head Sound Bar를 설치하여 차량 내부에서 프리어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줌-인, 줌-아웃기능 기능과 Apple Car Play가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즐거움을 더해준다.

Safety and Solid

진보된 전면 및 측면 에어백 시스템으로 유사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강도 스틸 빔(steel beams)을 사용해 차량의 측면 강도를 높였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BSM), 차선이탈 경고시스템 (LDW), 등 주행안전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되었고, Hill Start Assist는 급격한 경사를 오를 때,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한다. 후방 카메라, 타이어 기압 모니터링 시스템도 주행상황을 바로 알 수 있어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Sahara, Rubicon 모델 적용)



프리미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우퍼 스피커와
Apple 호환이 가능한 Car Play.

Wrangler on the Storm

Jeep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 Wrangler.
새롭게 출시하는 All New Wrangler를 기념하여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어울리는 음악을 소개한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Wrangler의 거침없는 질주에, 이보다 멋진 음악은 없겠다.

**노을 지는 저녁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 'Riders on the Storm' 을 들어보자.
궁극의 Jeep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rangler'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바로 Doors의 'Riders on the Storm'이라는 곡이다. 오래전 막내 삼촌이 Wrangler Rubicon을 구입하셨다. 그때 강산을 누비며 듣기 좋은 음악 CD 10장을 선물 드렸다. 모두 내가 소장한 음반이었다. 도어스뿐 아니라 마빈 게이, 쿨앤더갱, 스티비 원더 등의 소울풀한 앨범부터 빌리 조엘, 스팅 등의 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음악들이었다. 삼촌의 Rubicon을 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내가 드린 모든 CD를 통틀어 Doors의 'Riders on the Storm'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소프트한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반복되면서 들려오는 폭풍 소리, 시를 읊조리는 듯한 짐 모리슨의 보컬이 더해지면 Wrangler 드라이브에 드라마틱한 무드를 선사한다. 7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여러 번 반복되는 'Riders on the Storm'이라는 제목은 'Wrangler의 운명'처럼 느껴진다. Wrangler의 전면 앵글에 비치는 고속도로 전경은 늘 새롭다. 와이드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느낌이랄까.
드넓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듯한 착각에 빠진 채, 시골로 내려갔던 그때의 명절을 기억한다.
2010년도 이후 생산된 자동차에서 CD로 음악을 듣는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많은 운전자가 스마트폰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 All New Wrangler가 Jeep 전통에 최첨단 기능을 더했듯, 로우파이로 녹음된 수많은 명곡이 리마스터링 되면서 하이파이 사운드로 비틀즈나 마일스 데이비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어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All New Wrangler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옛 Wrangler에서 CD로 플레이하던 'Riders on the Storm'을 All New Wrangler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All New Wrangler는 Uconnect 터치스크린을 통해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스마트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아닌가. 전통의 Jeep 감성에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더해졌다. Wrangler를 타고 강원도에 드라이브를 간다고 가정한다면…. 주행에 분위기를 더해줄 플레이리스트가 머릿속에 무궁무진하게 떠오른다.
'Riders on the Storm'은 1971년 7월 3일 사망한 도어스의 전설적인 보컬, 짐 모리슨이 마지막으로 레코딩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Wrangler 드라이버라면 이 곡을 플레이 해보길 바란다. 내가 그랬듯이 'Wrangler에 딱'이라는 느낌이 올지도 모르니까. 궁극의 Jeep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노을 지는 저녁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에서라면 더욱 강력하게 추천한다.
파리의 페르라셰즈 공동묘지에 있는 짐 모리슨의 무덤에 들른 적 있다. 유명인의 무덤을 방문하는 동기에는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과는 다른 비장함이 있다.
2006년의 초여름, 딱 이맘때였다. 짐 모리슨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 앞서 비제, 쇼팽, 미셸 페트루치아니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덤가를 서성였다. 마침내 짐 모리슨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온통 입술 자국으로 뒤덮인 비석 때문이었다.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수천 명의 키스를 받은 락스타의 무덤이라니…. 수많은 유명인이 묻혀있는 페르라셰즈 묘지 전체에서, 키스로 뒤덮인 비석은 단 두 곳이었다. 바로 짐 모리슨과 오스카 와일드의 무덤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두 예술가다. 터프하고 남성적인 Jeep의 DNA에 첨단기술과 세련됨을 더한 All New Wrangler의 공개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 무덤 앞에 서 있듯 나는 온 마음을 뺏겨버렸다. 그리고 짐 모리슨이 떠올랐다. 잠시 후 나는 중얼거렸다.
"짐 모리슨을 닮은 녀석이 나왔구나."

All New Wrangler에 어울리는 드라이빙 뮤직

Beerbongs & Bentley
Post Malome

히트 싱글 'Psycho'의 뮤직비디오에서 포스트 말론은 탱크를 타고 나타난다. 나는 그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자마자 적잖은 모방 충동을 느꼈고, 대안으로 Wrangler를 떠올렸다. 진정한 오프로드인 사막을 질주하는 탱크! 시중에서 탱크에 가장 가까운 차를 구매할 수 있다면 Wrangler가 아닐까?

Sunset Rollercoaster
Jinji Kikko

첫인상은 Jeep에 비해 조금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얼마 전, 홍대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가진 Sunset Rollercoaster의 음악은 단단하면서도 자유로웠다. 무엇보다 20세기의 감성을 그대로 가진 하이브리드 밴드 음악이라는 점에서 Jeep 감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달이 말라가는 저녁
박준하

Wrangler는 드라이버와 함께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숙성해가는 차다. 나이들수록 쿨해진다. 박준하의 음악도 그렇다.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한다는 그의 첫 정규앨범 '달이 말라가는 저녁'을 들어보자. All New Wrangler에 최적화된 노래로는 'Moondry Evening'을 꼽을 수 있다.

Brand News

서울 수입 자동차 랜드마크, 도산대로 Jeep 전용 전시장 OPEN

모든 SUV의 시작, Jeep가 서울 수입 자동차의 랜드마크인 강남구 도산대로에 Jeep 전용 전시장인 청담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청담 Jeep 전용 전시장은 지난 1월에 오픈한 강서 Jeep 전용 전시장, 3월에 오픈한 인천 Jeep 전용 전시장에 이어 세 번째 Jeep 전용 전시장이다.
Jeep는 청담 Jeep 전용 전시장 오픈을 기념하여, 시승 및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오픈 이벤트 기간 동안 Jeep의 대표 차량들을 만날 수 있는 히어로 카 존(Hero Car Zone)에는 한국 전쟁에서 연합 작전을 훌륭히 수행했던 Jeep의 전신인 윌리스(Willys) 모델이 고객들을 맞이했다. Jeep는 올해 상반기에 강서 Jeep 전용 전시장, 인천 Jeep 전용 전시장, 청담 Jeep 전용 전시장을 오픈하였으며 대구, 부산, 포항, 전주, 광주, 대전, 제주 등 Jeep 전용 전시장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Jeep Care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Jeep만의 최상의 서비스 제공

Jeep는 독보적인 SUV 브랜드로서 고객들의 큰 성원에 보답하고, 수입 SUV 시장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인 'Jeep 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5월부터 실시하는 'Jeep 케어 서비스'는 그동안 차종별로 상이했던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 서비스를 최장기간인 5년으로 통일하면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Jeep만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Jeep 케어 서비스'는 ▲5년 메인터넌스 프로그램(5–Years Maintenance Program) ▲풀타임 모빌리티 개런티(Full–Time Mobility Guaranty) ▲5년 보증 연장 프로그램(5–Years Extendable Warranty Program)으로 구성된 서비스 패키지로 Jeep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상 구매 옵션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Jeep 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19개 FCA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Flying above the surf!

서핑의 계절이 돌아왔다.
숲을 가르고 진흙탕을 넘어서라도 파도를 찾아가는 서핑족들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서핑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WSL(World Surf League)도 얼마 전 '2018 Uluwatu CT Jeep' 대회를 통해
서핑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발리의 울루와투에서 열린 이 대회는
세계 서프 리그 챔피언십 투어의 일환으로 브라질의 윌리언 카도가 우승을 차지했다.
Jeep는 WSL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다지며 '2018 Uluwatu CT Jeep'를 빛냈다는 후문이다.
올여름에도 Jeep는 서퍼들의 서핑 여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파도를 뛰어넘는 서핑족들을 위해, 산과 강을 넘으며 사륜구동의 강한 힘을 보여줄 예정.
서핑의 짜릿한 모험으로 더위를 날려버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서핑보드를 Jeep 지붕 위에 싣자.
Jeep가 당신에게 강렬한 여름을 선사할 것이다.

Service Centers

01 서울

씨엘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4
연락처 1588–4450

렉스모터스 성동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28
연락처 02–462–3131

빅토리오토모티브 서초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3
연락처 02–3478–0009

프리마모터스 영등포 서비스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30길 30
연락처 02–6925–0393

02 인천

JK 모터스 인천 서비스센터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3
연락처 032–881–3006

03 경기도

프리마모터스 일산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20
연락처 031–922–0117

보성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9
연락처 031–237–4230

빅토리오토모티브 분당 서비스센터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132
연락처 031–896–0005

04 강원

강원모터스 원주 서비스센터
위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4
연락처 033–766–6301

05 충북

렉스모터스 청주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42
연락처 043–277–3320

06 충남

비전오토모빌 천안 서비스센터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3–6
연락처 041–523–2211

07 전북

라온모터스 전주 서비스센터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2길 3–26
연락처 063–271–7300

08 전남

선일모터스 광주 서비스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9
연락처 062–676–8371

09 포항

경북모터스 포항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30
연락처 054–283–5336

10 대구

대경모터스 대구 수성구 서비스센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77
연락처 053–564–0110

11 울산

우진모터스 울산 서비스센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66번길 5
연락처 052–272–7600

12 부산

우진모터스 부산 서비스센터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01
연락처 051–704–0065

13 창원

대경모터스 창원 서비스센터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3길 1
연락처 055–296–1005

14 제주

프리마모터스 제주 서비스센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2
연락처 064–745–4588

Jeep

계절의 시작과 함께 발간되는
Jeep Story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info@jeep.co.kr로 받으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ww.jeep.co.kr

Jeep®
QR코드 찍고 특별한 행운을 잡으세요!
www.jeep.co.kr